



● 인성이 전투력이다

<8> 국방부 2017년 장병 집중인성교육

#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군대를 만든다



국방부가 오는 27일부터 '2017년 장병 집중인성교육'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집중인성교육 모습.

김 경 욱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장 인터뷰

## “군 복무는 헌신 봉사의 첫 경험일 것 전우들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은 필수”



“군 인성교육이 병사들의 자존감과 사기를 높이고 전투에 대한 배려를 익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병영 내 악습을 없애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겁니다.”

국방부 장병 집중인성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방교육정책관실 김경욱(서기관) 정신전력 정책과장은 올해 국방부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으면서 군의 인성교육은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시대적으로 군이 인성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병사는 외아들이고 입대 전까지 자신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병사들의 인생에서 군 복무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 봉사는 첫 경험인 셈이죠. 인성 교육은 그런 봉사의 시간을 보내는 병사들에게 자신과 전우,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또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병사들이 집중적인 인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가가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 기회이기도 하지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 수준은 물론 과거 실적, 사업자 신뢰도, 교육 노하우(know-how)까지 심사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힌 김 과장은 교육에 대한 지휘관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들여 최고의 전문가가 하는 흔치 않은 교육 기회입니다. 이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휘관·간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죠. 대대 인원들이 열외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장은 물론 상급부대 지휘관께서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시면 큰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김가영 기자

국방부가 단일 민간위탁 교육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인성교육에 나선다.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는 최근 ‘2017년 장병 집중인성교육’을 위한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치고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장병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했지만, 올해 교육은 예산·규모·내용 등 여러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우선 예산이 확 늘었다. 지난해 약 21억 원이었던 예산이 약 50억 원으로 무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인성교육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갖추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정신적으로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강한 군인이자 건전한 민주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덕분이다. 지난해 인성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79%의 참가자가 교육에 대해 ‘만족 이상’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것도 큰 힘이 됐다.

참가자의 79% ‘만족 이상’... 반응 긍정적  
올해는 예산 50억 원 투자해 병사 55% 교육  
교육 우수부대 등 부대·개인에 표창 수여도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교육 인원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육·해·공군, 해병대의 대대급 부대 중 접적지역 부대 490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전체 병사 중 15만여 명만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병사 중 55%인 23만여 명의 병사가 국방부 집중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권역도 더욱 세밀하게 나뉘었다. 기존에는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뉘었지만, 올해는 4개 권역으로 나뉘었다. 1권역은 육군1야전군, 2권역은 육군2작전사 및 육군직할 등, 3권역은 육군3야전군, 4권역은 해·공군, 해병대 부대로 나눠 군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서울여대 산학협력단(1권역), 한국인성교육연구소(2권역), 청소년폭력예방재단(3권역), 한국인성개발연구원(4권역) 등 사회에서 전문성과 교육능력을 인정받은 전문 기관을 위탁교육 사업자로 선정했다.

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기본형인 2박3일 교육을 하되 해·공군은 1박2일로 압축된 교육을 실시한다. 부대 여건을 고려한 해·공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인성교육 대상 부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푸짐한 포상도 계획하고 있다. 올 연말 5곳의 ‘부대교육 우수부대’와 5명의 ‘인성교육 유공자’를 선정, 모두 국방부장관 부대·개인 표창을 수여한다는 것.

김경욱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 전 병사들이 1년에 한 번은 집중인성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망각 주기를 고려해 전 병사가 1년에 두 번은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김가영 기자 kky71@dema.mil.kr

사진=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제공



■ 편집=김주연 기자